

2022 Vol.6

전북교육정책

오늘 2



교육주체별 인식 조사를 통한
전북 미래교육 방향 모색



교육주체별 인식 조사를 통한 전북 미래교육 방향 모색



교육정책 현안보고서 요약

- ☞ 미래사회에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교육적 담론과 관심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교육정책 현안보고서'에서는 OECD 및 국내의 미래교육 관련 동향분석과 교육주체별 인식조사를 통해 19대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었다.
- ☞ OECD 교육 2030에서는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웰빙(Well-being)'으로 설정하고, 미래교육에서 주도성(agency)과 변혁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우리나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인구 감소와 세계적 감염병 상황,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첨단기술로 인한 급격한 변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대 인간상과 6대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해 기초·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교육 역량을 제시하였고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전북미래학교를 추진 중이다.
- ☞ 전북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여론을 알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다. 인식조사에서 교육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첨단기술 발전이었다. 지향점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 인간상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 학생 필요 역량으로는 소통능력, 학교 교육으로는 인성교육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 전북 미래교육 방향 인식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기초·기본 학력,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과밀학급 해소와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바라고 있었다.
- ☞ 이번 교육정책 현안보고서에 담은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미래교육 방향 모색의 필요성
- ▶ OECD 미래교육 방향
- ▶ 우리나라 미래교육 방향
- ▶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교육 방향
- ▶ 전북 미래교육 방향 인식조사
- ▶ 시사점



미래교육 방향 모색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로 급격한
다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유연한
대처 역량 필요**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로 양적·
질적 인재 부족에 대한
**미래인재 양성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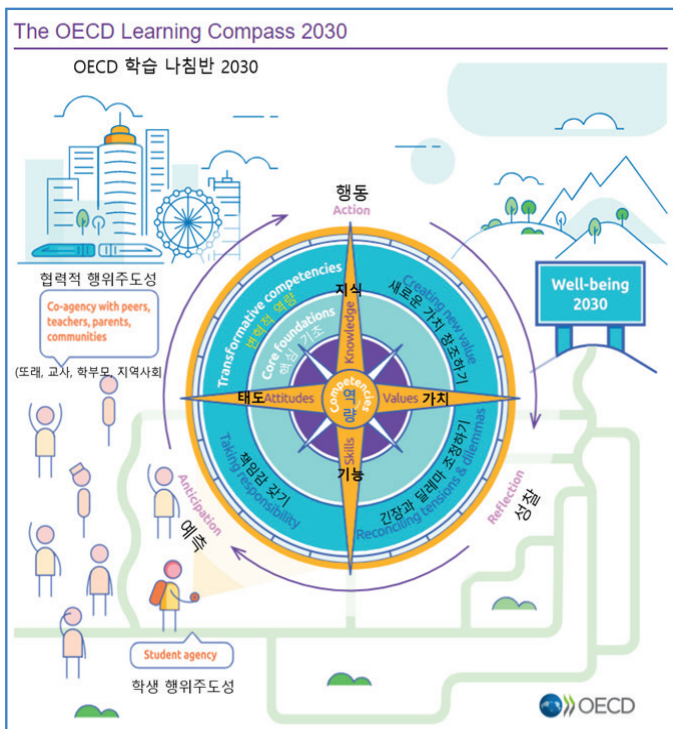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및
**미래지향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

양극화, 고령화,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자기 주도
**역량 등 시민교육
환경 필요**



OECD 미래교육 방향

- OECD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2030년을 기준으로 하는 'OECD 교육 2030(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학습개념틀(Learning Framework)을 제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개념틀(Teaching framework)이 제시될 예정이다.
- OECD는 미래교육에서 '역량(competencie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지향점을 종전의 '성공'에서 개인·사회의 행복한 삶인 '웰빙(Well-being)'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자는 미래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공동의 행복한 삶인 '웰빙'을 성취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 행위주도성(student agency)'과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이 강조된다.
- 'OECD 교육 2030'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향해갈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돕는다.'는 의미로 학습개념틀을 도식화하여 '학습나침반 2030(Learning Compass 2030)'을 제시하였다. 학습나침반 핵심 기초에는 문해력, 수리력, 건강·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다.



[출처]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누리집, 최수진(2019).

- 학습나침반의 역량은 '핵심 요소(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의식을 특징으로 한다. 변혁적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이 능력으로서의 역량과 유사하다.
- OECD 교육 2030에서는 학습자가 핵심 기초와 역량을 바탕으로 '예측→행동→성찰'의 순환과정을 통해 주도성(agency)이 증진된다고 본다. 그리고 증진된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삶(웰빙)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지향점이다.



우리나라 미래교육 방향

- 교육부는 미래교육 분야별 정책 수립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2019)하여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2020.4.)하여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2020.10.)를 제시하였다.
- 교육부의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와 국가교육회의의 '국민참여단 선정 10대 의제'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부] 미래교육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순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10대 의제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1	개인별, 지역별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한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
새로운 교원제도 추진	2	IT 인프라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 데이터 기반 학교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 구축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3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원 양성, 재교육시스템 구축 및 인사제도 개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4	민주시민, 세계 시민교육, 기후, 환경, 생태, 문화예술, 철학, 인문학, 역사교육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변화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5	미래교육 환경 변화(코로나19, 학령인구 변화, 에듀테크 등)에 따른 수업과 학습, 공간혁신 및 지원체제 구축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6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법 정비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7	학생의 잠재 능력을 평가, 미래지향적 가치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선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8	국가적 돌봄 지원체제 정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9	국민의 생애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 학습체제 구축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10	주민자치, 일반자치, 교육자치가 함께 하는 긴밀한 협력과 협치 체제 구축

[출처] 교육부(2020), 국가교육회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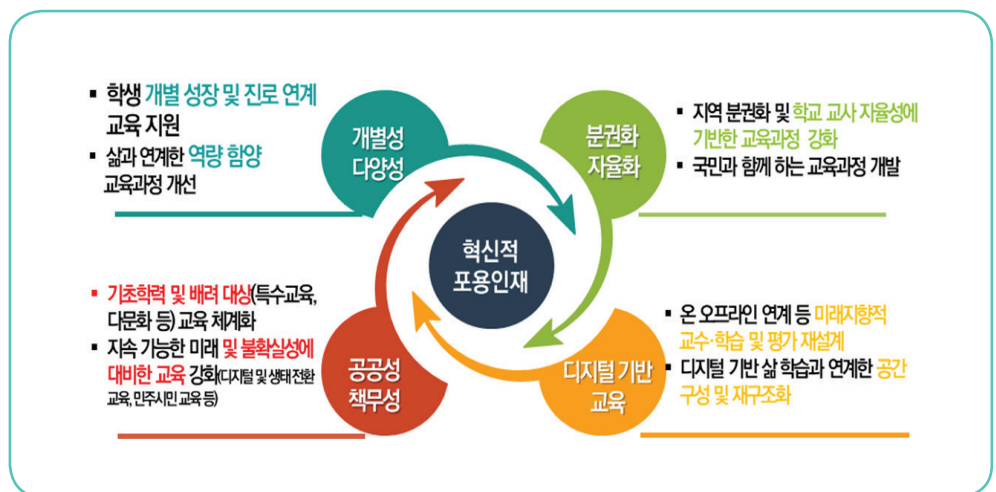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교육 방향

☞ 교육부(2021)의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는 비전,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추진 방향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교육부, 2021)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과제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추진과제에서는 삶과 연계한 학습, 디지털 기초소양, 생태 전환·민주시민 교육 강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지역·학교(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교원 디지털·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 인간상 등 교육방향 제시
- 공동체 가치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 모두를 위한 교육 강화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지원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 초·중등학교의 학교급간 진로연계 교육 강화
- 고교학점제 안착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교육환경 변화 대응 지원

-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출처]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교육부, 2021)



전북 미래교육 방향 인식조사

- 교육 변화 흐름과 더불어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의 미래교육 관련 공약에 따라 교육주체(학생·교원·학부모)가 생각하는 미래교육 방향 관련 인식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보호자(이하 학부모로 통일)'를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개요

- 교원과 학부모는 응답자 배경을 포함하여 총 9문항, 학생은 7~8번을 제외하고, 총 7문항에 답하였다.
- 문항 1~6번까지는 미래교육 관련 내용으로 전북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 문항 7~8번은 정책 관련 문항으로 전북의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 설문조사는 지역별 초·중·고 각 1개 학교씩을 선정하여 총 42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 설문조사의 대상 학교 표집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다.
 - 초등학교: 지역별 학생 수가 많은 학교
 - 중학교: 지역별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공·사립 여부, 재학생의 성별
 - 고등학교: 중학교 고려 기준에 학교 계열까지 포함
- 설문의 용어와 내용이 초등학생에게 어렵다는 판단 아래 초등학생은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 대입, 취업, 수능 등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고3 학생 역시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명(기간)	전라북도 미래교육 인식 설문조사(2022.9.13. ~ 9.20.)		
표집 학교	전라북도 14개 지역 초·중·고(42교 표집)		
조사 대상	학생 (중1~고2)	초·중·고 교원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보호자)
응답자(명)	588	548	421
문항 구성	7문항	9문항	9문항

설문 결과 분석

1번 문항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 방향 확인

1번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미래교육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것으로 참여자 전원이 응답하였다.

1번 문항

위의 내용(전라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확인하였습니다.

2번 문항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래사회 변화 요인은?

- 교원, 학부모는 교육에 영향을 주는 미래사회 요인으로 '인구 감소'와 '첨단기술 발전'을, 학생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 전북의 학생과 교원의 공통 1위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였다.
- 학생 2위는 '기후변화, 코로나 등 환경·질병 재난의 일상화', 교원 2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었다.
- 학부모 1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기술의 발전', 2위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였다. 학부모의 1~4위까지의 선택 인원과 비율은 수치상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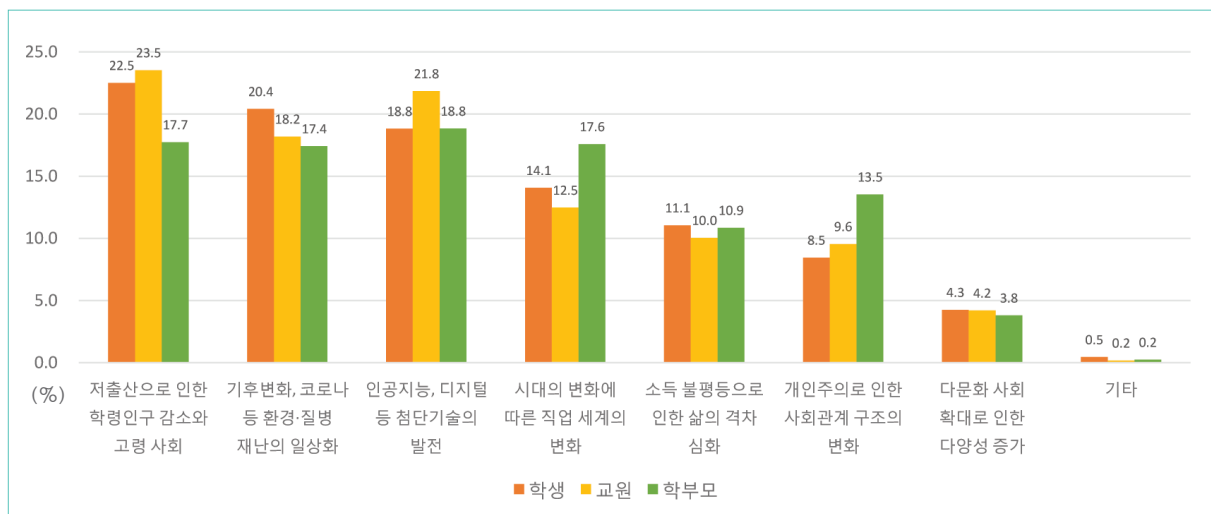
2번 문항

미래사회의 변화 중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588명)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397명(22.51%)	387명(23.54%)	224명(17.74%)
기후변화, 코로나 등 환경·질병 재난의 일상화	360명(20.41%)	299명(18.19%)	220명(17.42%)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기술의 발전	332명(18.82%)	359명(21.84%)	238명(18.84%)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248명(14.06%)	205명(12.47%)	222명(17.58%)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삶의 격차 심화	195명(11.05%)	165명(10.04%)	137명(10.85%)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관계 구조의 변화	149명(8.45%)	157명(9.55%)	171명(13.54%)
다문화 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성 증가	75명(4.25%)	69명(4.20%)	48명(3.80%)
기타	8명(0.45%)	3명(0.18%)	3명(0.24%)

(다중응답)



3번 문항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는?

❑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를 순위로 답하는 문항에 전북의 학생, 교원, 학부모는 공통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를 1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설문(국가교육회의, 2021, 101,214명) 1위 결과와 같다.

❑ 학생, 학부모는 2위로 '학생 개개인의 선택과 권리 존중'을, 교원은 2위로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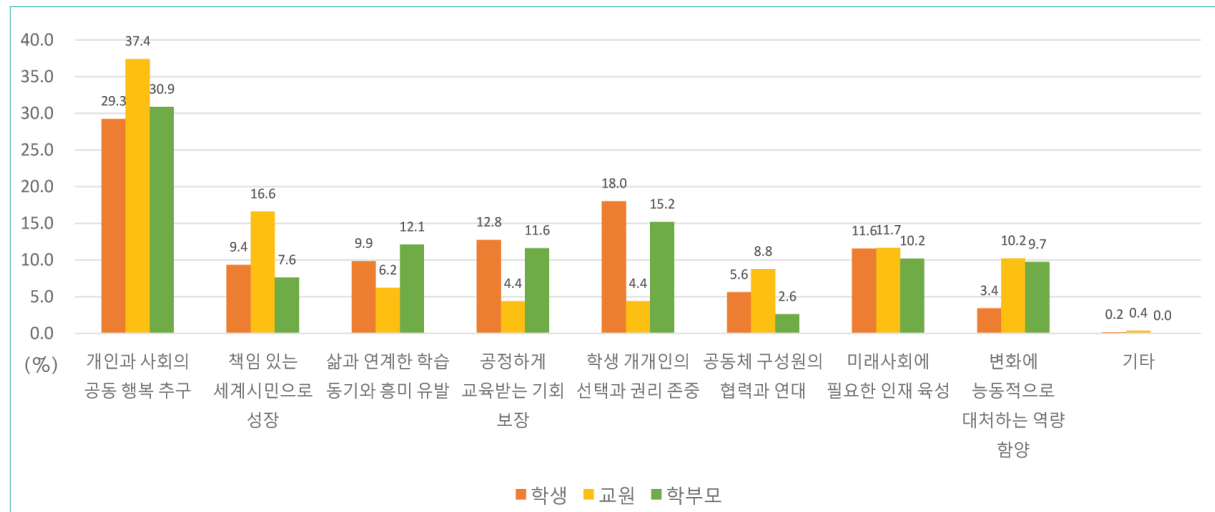
3번 문항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3순위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588명)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	172명(29.25%)	205명(37.41%)	130명(30.88%)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55명(9.35%)	91명(16.61%)	32명(7.60%)
삶과 연계한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	58명(9.86%)	34명(6.20%)	51명(12.11%)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회 보장	75명(12.76%)	24명(4.38%)	49명(11.64%)
학생 개개인의 선택과 권리 존중	106명(18.03%)	24명(4.38%)	64명(15.20%)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	33명(5.61%)	48명(8.76%)	11명(2.61%)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	68명(11.56%)	64명(11.68%)	43명(10.21%)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 함양	20명(3.40%)	56명(10.22%)	41명(9.74%)
기타	1명(0.17%)	2명(0.36%)	0명(0.00%)

(1순위 응답)



4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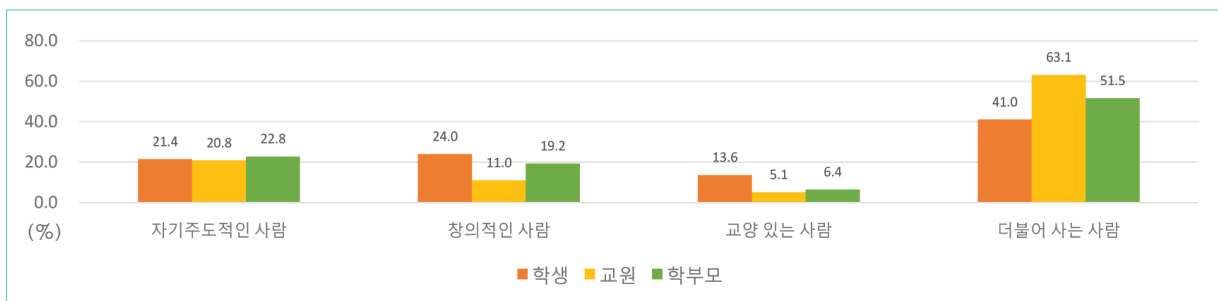
전북 미래교육의 인간상은?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중 전북 미래교육에 가장 필요한 인간상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학생, 교원, 모두 '더불어 사는 사람'을 1위로 선택하였다.
- 1위로 '더불어 사는 사람'을 선택한 비율에서 학생(41.0%), 학부모(51.5%)에 비해 교원(63.1%)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았다.

4번 문항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입니다.
이중 전북 미래교육에 가장 필요한 인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126명(21.43%)	114명(20.80%)	96명(22.80%)
폭넓은 기초와 지식과 능력의 바탕 위에 진취적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141명(23.98%)	60명(10.95%)	81명(19.24%)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을 도야하며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80명(13.61%)	28명(5.11%)	27명(6.41%)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41명(40.99%)	346명(63.14%)	217명(51.54%)



5번
문항

전북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미래역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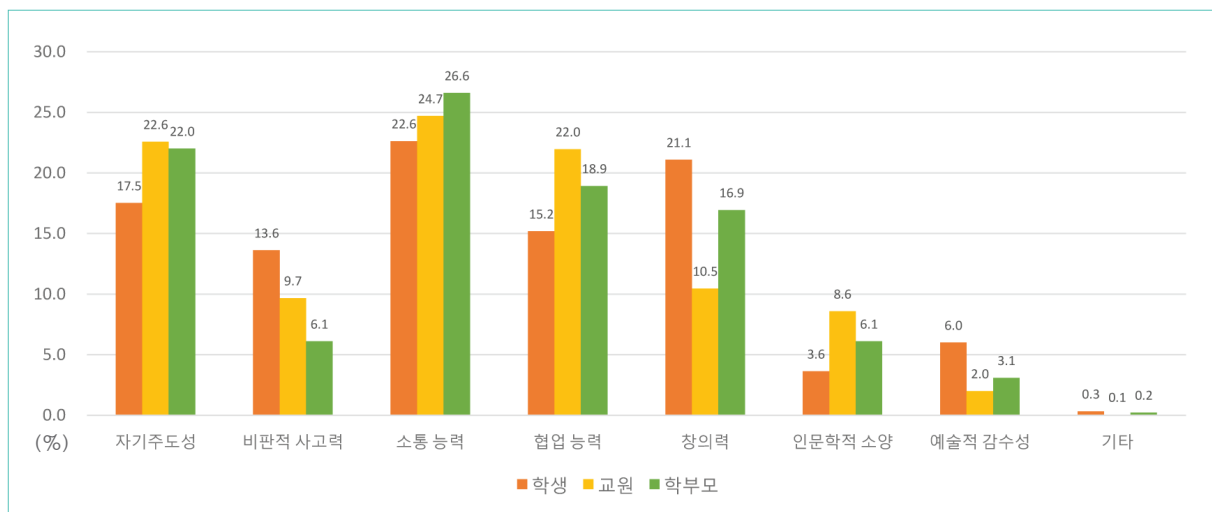
- 전라북도교육청의 미래 역량 중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역량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는 공통으로 '소통능력'을 1위로 선택하였다.
-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소통능력' 다음으로 필요한 역량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창의력'을 선택하였다.

5번 문항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미래역량 중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588명)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자기주도성	309명(17.52%)	371명(22.57%)	278명(22.01%)
비판적 사고력	240명(13.61%)	159명(9.67%)	77명(6.10%)
소통능력	399명(22.62%)	406명(24.70%)	336명(26.60%)
협업 능력	268명(15.19%)	361명(21.96%)	239명(18.92%)
창의력	372명(21.09%)	172명(10.46%)	214명(16.94%)
인문학적 소양	64명(3.63%)	141명(8.58%)	77명(6.10%)
예술적 감수성	106명(6.01%)	33명(2.01%)	39명(3.09%)
기타	6명(0.34%)	1명(0.06%)	3명(0.24%)

(다중응답)



6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더 필요한 교육내용은?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필요한 교육내용을 순위로 답하는 문항에서 교원, 학부모의 공통 1위는 '인성교육'이었다. 교원, 학부모와 다르게 학생의 1위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이었다.

교원(40.5%), 학부모(37.3%)의 '인성교육' 선택 순위와 비율에 비해 학생의 '인성교육' 선택 순위(3위)와 비율(16.7%)은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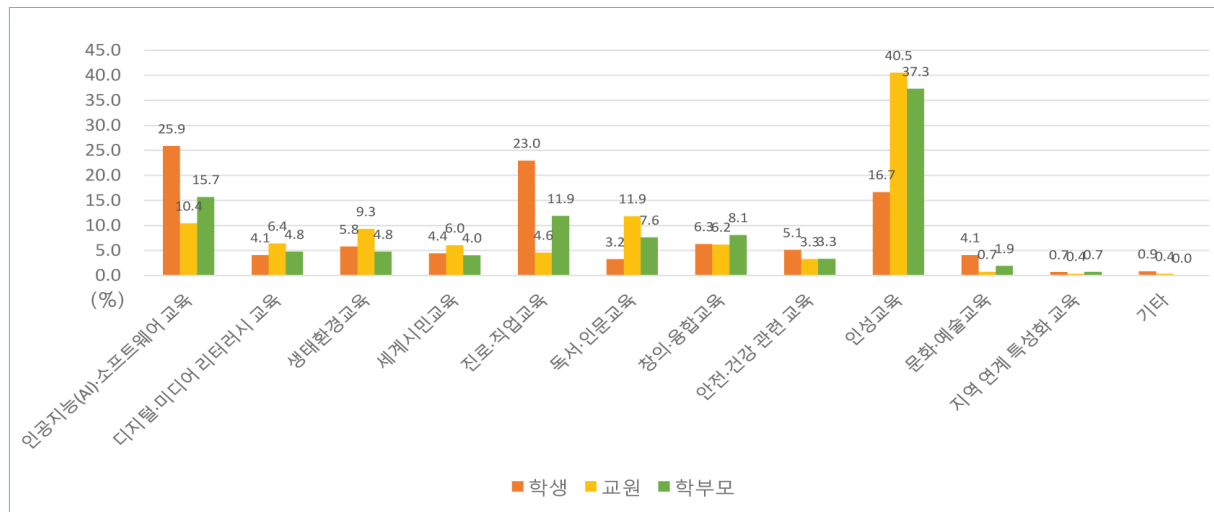
6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강화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3순위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588명)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	152명(25.85%)	57명(10.40%)	66명(15.68%)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4명(4.08%)	35명(6.39%)	20명(4.75%)
생태환경교육	34명(5.78%)	51명(9.31%)	20명(4.75%)
세계시민교육	26명(4.42%)	33명(6.02%)	17명(4.04%)
진로·직업교육	135명(22.96%)	25명(4.56%)	50명(11.88%)
독서·인문교육	19명(3.23%)	65명(11.86%)	32명(7.60%)
창의·융합교육	37명(6.29%)	34명(6.20%)	34명(8.08%)
안전·건강 관련 교육	30명(5.10%)	18명(3.28%)	14명(3.33%)
인성교육	98명(16.67%)	222명(40.51%)	157명(37.29%)
문화·예술교육	24명(4.08%)	4명(0.73%)	8명(1.90%)
지역 연계 특성화 교육	4명(0.68%)	2명(0.36%)	3명(0.71%)
기타	5명(0.85%)	2명(0.36%)	0명(0.00%)

(1순위 응답)



7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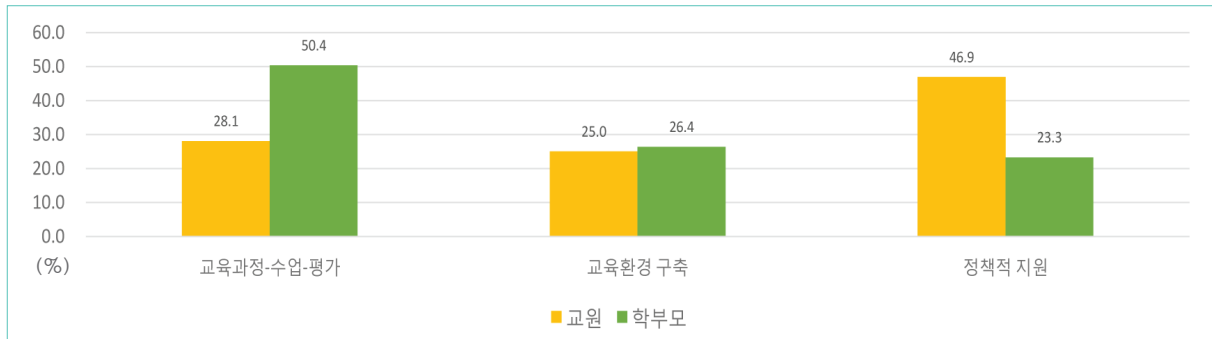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 먼저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교원은 '정책적 지원'(46.9%), 학부모는 '교육과정-수업-평가'(50.4%)를 각각 1위로 선택하였다.

7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기본교육 강화/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수업과 평가 방법 혁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154명(28.10%)	212명(50.36%)
교육환경 구축 학교 공간 재구조화/디지털 학습환경 구축/협력적 학교문화 조성/학생 선택권 보장(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137명(25.00%)	111명(26.37%)
정책적 지원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소규모 학교 통합 운영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교원의 생애주기별 연수 지원(AI·소프트웨어 교육, 학습연구년 지원 등)	257명(46.90%)	98명(23.28%)



8번 문항

[교육과정·수업·평가], [교육환경 구축], [정책적 지원]의 각 영역에서 중점 실천이 필요한 내용은?

8번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 [교육환경 구축], [정책적 지원]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각각 4가지씩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응답자에게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8번 문항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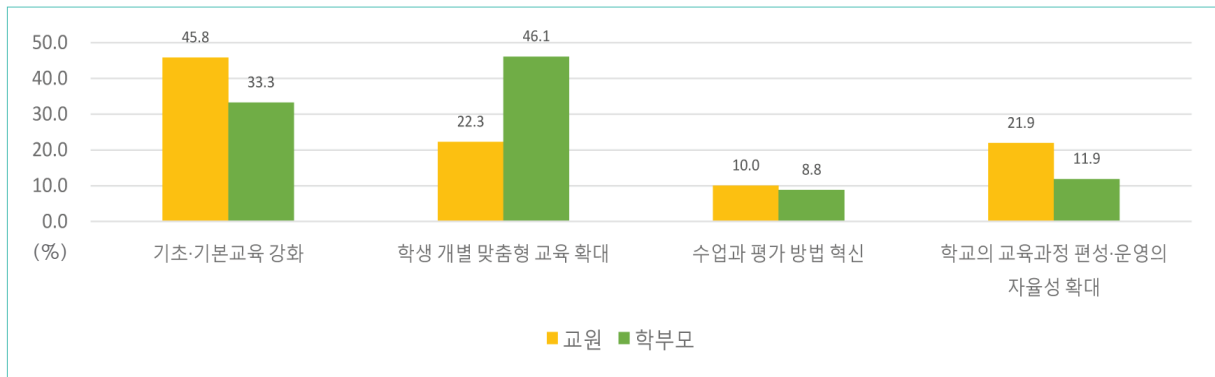
8번 문항 중 [교육과정·수업·평가] 영역

- 교원은 '기초·기본교육 강화', 학부모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각각 1위로 선택하였다.
- 학부모 선택 1위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교원은 2위로 선택하였고, 교원 선택 1위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학부모는 2위로 선택하였다.
- 학부모 2위(33.3%, 140명)와 3위(11.9%, 50명)의 격차(21%, 90명)에 비해 교원 선택 2위(22.3%, 122명)와 3위(21.9%, 120명) 선택 격차(0.4%, 2명)는 크지 않았다.

8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과정·수업·평가] 중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기초·기본교육 강화	251명(45.80%)	140명(33.25%)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	122명(22.26%)	194명(46.08%)
수업과 평가 방법 혁신	55명(10.04%)	37명(8.79%)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120명(21.90%)	50명(11.88%)



8번 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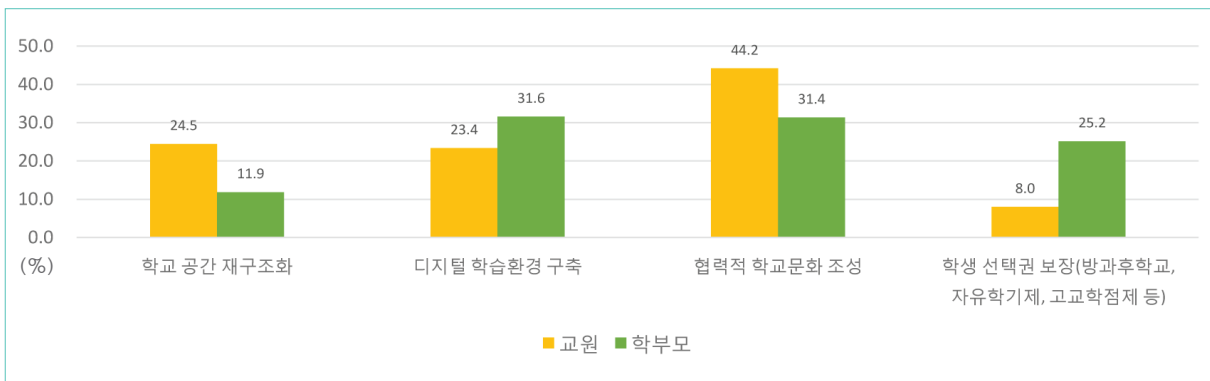
8번 문항 중 [교육환경 구축] 영역

- 교원 선택 1위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2위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였다.
- 학부모 선택 1위는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2위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이었다. 학부모 선택 1위와 2위의 응답자 수 차이는 1명이었다.

8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환경 구축] 중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학교 공간 재구조화	134명(24.45%)	50명(11.88%)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128명(23.36%)	133명(31.59%)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242명(44.16%)	132명(31.35%)
학생 선택권 보장(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44명(8.03%)	106명(25.18%)



8번 문항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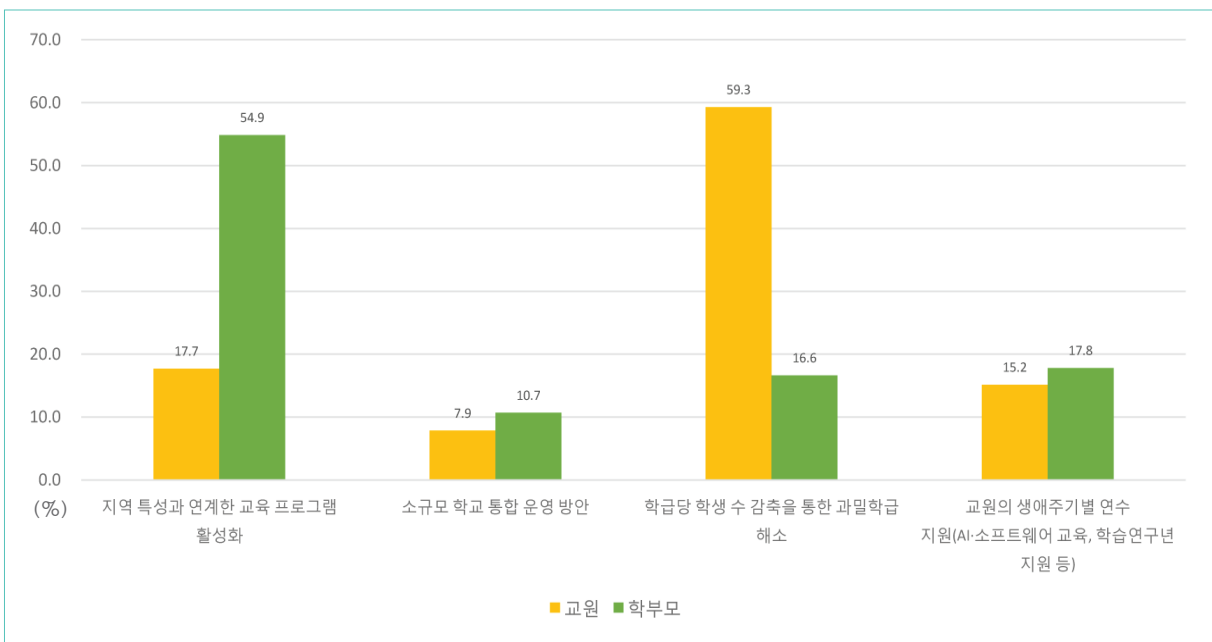
8번 문항 중 [정책적 지원] 영역

- 교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를, 학부모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각각 1위로 선택하였다.
- 교원(59.3%), 학부모(54.9%)의 1순위 선택 비율이 과반이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교육환경 구축] 영역에 비해[정책적 지원]에서 양측이 원하는 항목의 선호도는 뚜렷한 편이었다.

8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책적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교원(548명)	학부모(421명)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97명(17.70%)	231명(54.87%)
소규모 학교 통합 운영 방안	43명(7.85%)	45명(10.69%)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325명(59.31%)	70명(16.63%)
교원의 생애주기별 연수 지원 (AI·소프트웨어 교육, 학습연구년 지원 등)	83명(15.15%)	75명(17.81%)



9번
문항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실천 방안에 대한 교원, 학부모 자유 의견

아래는 교원과 학부모가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청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서술한 내용 중 학교 현장에 의미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추출한 것이다.

9번 문항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천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교원 의견

기초·기본 학력 신장

- 사회가 아무리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해도 기초 기본학습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제고 및 정량적인 기초 학력 평가를 포함해 주세요.
- 삶의 의미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담임선생님과 많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체험과 체계적인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일찍부터 찾아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보호

- 학생 인권, 학부모 및 학생의 폭력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소극적인 태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수업 및 학생 지도에 교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

- 무엇보다도 인성교육, 공동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정신을 기른 뒤에 미래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

-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이 학교에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가 그 다양성을 포함해낼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어떤 교육과정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교과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맞추어 그 형식을 다 만들어내야 가능합니다.

과밀학급 인센티브

- 시 단위 학교 근무 승진점수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에서 시 단위로의 전보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승진점수 부재 및 과밀 학생, 학급으로 인해 겪는 생활지도 및 교과 지도의 고충 때문입니다.

미래교육

- 미래교육은 첨단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갈 소양 및 역량을 갖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 학교와 학부모, 지역민의 교육적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해야 합니다.

학부모 의견

기초·기본 학력 신장

- 기초교육 강화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 아이들 기초학력을 위해서 쓰기와 말하기를 좀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급별 학생 수를 담임교사 1인당 20명 이하로 줄여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도시 학교는 20명이 넘고 심지어 30명이 넘는 학급도 여전히 많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권 보호

- 떨어진 교권을 바로잡아 주시기에 힘써주세요.
-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세워줄 필요가 있고 가정과도 연계해 주세요.

인성교육

- 인성교육이 우선이고 교육에 첫 번째입니다.
- 모든 교육과정 중에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보다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자율성 확대

- 학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청의 통제와 규제를 지양하고 학교 자율성 존중 필요해요.

다양한 체험학습과 진로활동 활성화

- 학생 활동들이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생략되는 학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체험과 체계적인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일찍부터 찾아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제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항목을 넣어서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지역 격차 해결

- 대규모 도시지역과 소규모 농촌 지역의 격차는 매우 큼니다. 소규모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매우 적고 접할 수 있는 정보량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세요.

· 전북 미래교육 인식 설문조사 자유 서술의견(9번 문항) 주요 단어

* 글씨가 클수록 많이 사용된 단어 (출처: <https://art.wordrow.kr>)

교원 의견



학부모 의견



· 전라북도 미래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

설문 문항	응답 결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래사회 주요 요인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첨단기술의 발전*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가치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
전북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인간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미래역량	소통능력	소통능력	소통능력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교의 교육내용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

설문 문항	응답 결과	
	교원	학부모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적 지원	교육과정-수업-평가
미래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영역별 내용	교육과정-수업-평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정책적 지원	지역 특성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 학부모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본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로 1위 '첨단기술 발전'과 1.4%(18명 응답) 차이

** 학생은 '인성교육'을 3위로 선택했으며, 1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과 9.2%(54명 응답) 차이

*** '기초·기본교육 강화'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는 교원과 학부모 양측 모두에서 1~2위로 선택된 항목

시사점

● 교육주체들이 바라는 전북 미래교육의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사람

전북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바라는 인간상 1위는 공통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비전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바라는 인간상이 담겨 있다.

● 미래교육은 ‘삶에서 적용 가능한 역량’을 기르는 것

- ‘OECD 교육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에 미래교육 방향의 초점을 두고 있다.
- OECD 교육 2030은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개인과 공동의 행복한 삶인 ‘웰빙’으로 설정하였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 상황에 대해 예측(기대)→행동(실행)→성찰(반성)의 과정을 통해 주도성(agency)을 기르며, 학습자에게 함양되는 미래사회 역량을 ‘변혁적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변혁적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3가지 핵심 기초를 운용하는 능력’이며,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라는 3가지 범주로 제시되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라는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작용시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역량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6대 핵심 역량으로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자기관리’,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역량을 제시하였다. 전북의 미래교육 역량은 기초·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다른 역량들이 상호 융합·융화하는 구조이다. 아래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미래교육 역량의 평면도와 이를 3차원으로 표현한 예시이다.



전북 미래교육 역량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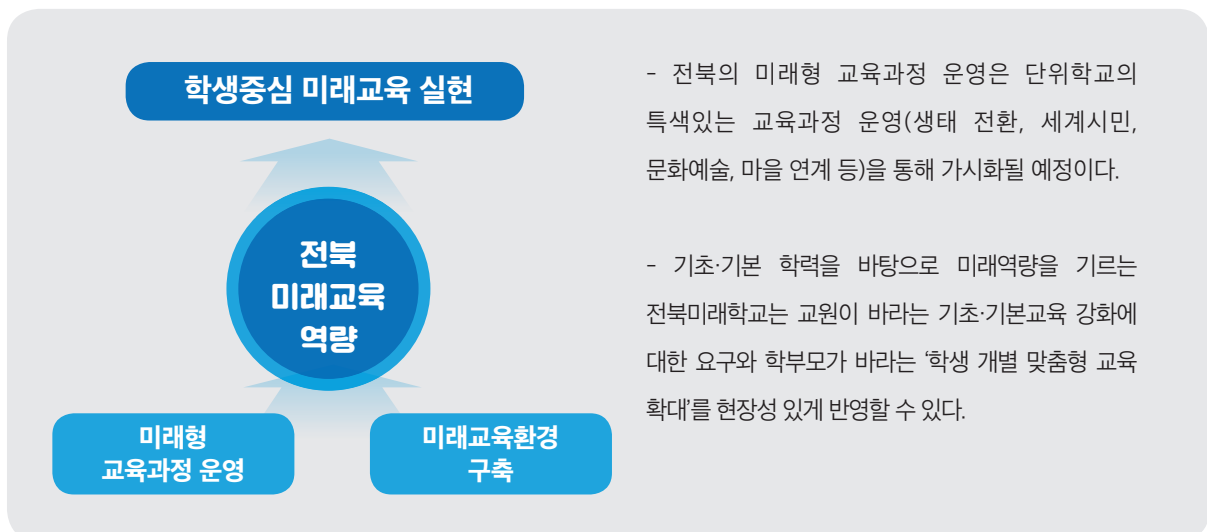
전북 미래교육 역량 3차원도(예시)

전북 미래역량의 토대는 기초·기본 학력, 가장 필요한 역량은 소통능력

전북 미래교육 역량의 토대인 '기초·기본 학력'은 전북 미래교육 방향 인식조사에서 교원들이 1위로 선택한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전북 미래역량의 토대인 기초·기본 학력 외의 역량 중 교육주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 역량은 '소통능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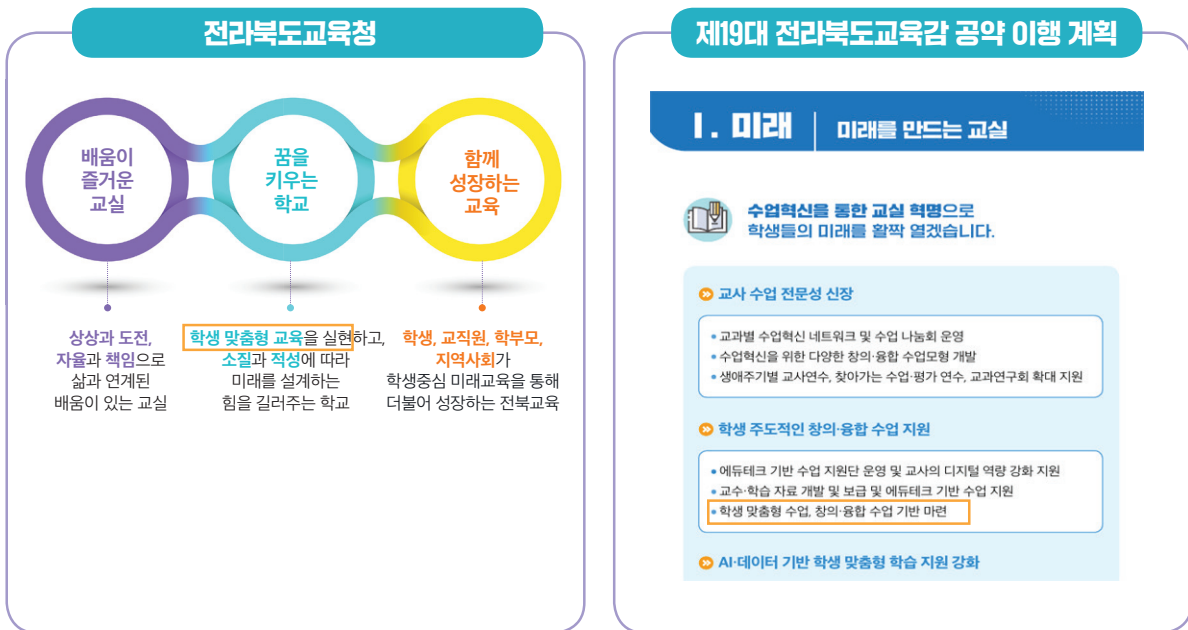
전북 미래교육 실현의 구동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전북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출처] 전북교육 주요 정책 리플릿(2022) 재구성

- 학부모가 미래형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바라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지표와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인성교육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

- 전북 미래교육 방향 인식조사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1위로 교원과 학부모가 선택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한 과제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인성교육에 관한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은 기존 인성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전 국민 설문조사(국가교육회의, 2021, 101,214명)에서 '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 1위로 선택된 것도 '인성교육'이다.
- 인성교육을 1위로 선택한 교원, 학부모와 다르게 전북의 학생들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1위(25.85%)로 선택하였다. 앞서 언급한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1위(27.0%), '진로·직업 교육'을 2위(22.7%)로 선택하였다. 전북의 학생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을 1위로 선택한 것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지역 학생들의 인식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북 미래교육 방향에 있어 면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전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북의 학생들도 '진로·직업 교육'(22.96%)을 2위로 선택하였다.

☐ 전북 미래교육 실현의 지지대 '미래교육환경 구축'

☐ 지역과 교육의 주요 현안인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교육환경 구축

- 인식조사에서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래사회 변화로 전북의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추세로 전북의 주요한 지역 현안이다. 지역 현안인 인구 감소, 교육 현안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대응을 위해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활발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관련 적정규모 학교 조성¹⁾, 농촌유학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²⁾ 등 거버넌스 구조의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중 'II. 책임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 내용

2)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중 'V.협력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내용

3) 학교 공간 변화 관련 내용은 「학교공간 어떻게 변하고 있나」(전북교육정책연구소, 2022 동향 분석 제8호) 참조

☐ 융합적 미래교육환경 구축

- 학교에서의 미래교육환경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형의 물리적 교육환경이며, 다른 하나는 무형의 문화적 교육환경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반인 역량이 능력끼리의 '융합'을 중시하듯, 교육환경 구축도 유·무형을 구분하는 것보다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 공간 혁신(재구조화)³⁾에서 'Make 공간+Use 공간', 에듀테크 기반 수업에서 'With 에듀테크+About 에듀테크'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AI 프로그램·AI 튜터(tutor) 등을 활용하는 것을 'With AI'라고 하며, AI의 알고리즘과 학습구조·AI 윤리 등을 배우는 것을 'About AI'라고 한다. 'With 에듀테크+About 에듀테크' 역시 유사한 구조의 개념이다.
-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에 대해 'With 에듀테크'의 관점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교실혁명(수업혁신) 관련 정책 추진에서 'With 에듀테크+About 에듀테크'의 융합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학교 현장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ake 공간'은 물리적 교육환경 구축이며, 'Use 공간'은 수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물과 교실 등 물리적 공간 구축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 완성 후 수업과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운영 측면의 지원 역시 학교 현장에 강화해야 한다.

☐ 전북 교원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은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 인식조사에서 전북 미래교육을 위해 중점 실천이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교원은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을 1위로 선택하였다. 학부모는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을 1위로 선택하였고, 2위로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을 선택하였다. 학부모 1위와 2위의 응답 인원 차이는 1명이었다. 협력적 학교문화를 바라보는 교원과 학부모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협력 문화 조성은 전북의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바라는 교육환경이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 디지털 교육기기가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디지털 학습환경 지원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부모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교육 주체가 원하는 정책적 지원

☐ 중점 실천이 필요한 '과밀학급 해소'와 '지역 특성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중점 실천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¹⁾를 1위로 선택하였다. 전체 응답 교원 548명 중 325명(59.3%)이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을 보면 이에 대한 교원의 요구를 알 수 있다. 교원 전체 응답자 548명 중 3시(전주, 군산, 익산) 근무자는 27.73%(152명)였다.
-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 정책적 지원 1위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였다. 교원은 학교 안의 교육환경 요소인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부모는 학교 밖과 연계된 교육환경 요소인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더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가 1위로 선택한 지역 특성 연계 교육은 국가교육과정²⁾의 방향과 같다.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 지원에 대해 전라북도의 교육정책 추진과 공약³⁾ 이행에서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지역 한계 교육 극복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순(교육연구사)
최흥규(교육연구사)
손형태(파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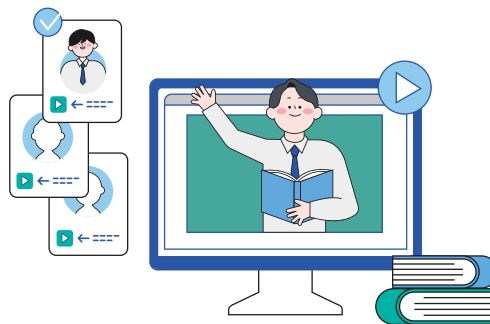
1)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중 'II.책임 9-2. 학급당 인원 20명 이하 단계적 실현'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등

3)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 중 지역 연계 관련: I.미래 3-2. (가칭)미래드림배움터 설치, 5-1. 예술놀이터 조성, 5-3. JB-스포츠클럽 운영; III.안전 17-2. 방과후학교·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V.협치-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중 25~27항목 등

· 전북 미래교육 방향 관련 참고표

	OECD Education 2030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라북도교육청	전북 학생·교원·학부모의 인식
지향점	웰빙*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삶)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
미래교육 추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성 • 불확실성 • 복잡성 • 모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 감염병 확산 • 기후환경 변화 • 학령인구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변화에 따른 전북교육 변화 요구 • 디지털 전환 • 기후환경 변화 • 학령인구 감소 • 학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 첨단기술 발전 •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 첨단기술 발전
역량 관련	핵심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력 • 수리력 • 건강·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 변혁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가치 창조 • 갈등과 딜레마 조정 • 책임감 갖기 	6대 역량	8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시 • 인성교육 중시 • 기초·기본 교육 중시 • 소통능력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관리 • 창의적 사고 • 협력적 소통 • 지식정보처리 • 심미적 감성 •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기본 학력 • 소통능력 • 비판적 사고력 • 예술적 감수성 • 자기주도성 • 협업능력 • 창의력 • 인문학적 소양 	
과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주도성 • 협력적 주도성** • 변혁적 역량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교육과정 • 학교 현장 지원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 교육환경 변화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 6대 영역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수업-평가 지원 •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 • 과밀학급 해소 • 지역 연계 교육 • 협력적 학교문화



* 웰빙(Well-being) 이전 OECD 교육의 지향은 '성공'이었음

** 현재 학습개념틀(Learning Framework)을 통해 학생 주도성, 협력적 주도성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교수개념틀(Teaching Framework)을 통해 교사 관련 내용이 제시될 예정임

■ 참고자료

- 전라북도교육청(2022), 전북교육 주요 정책 리플릿(<https://bit.ly/3dZsTwk>)
- 전라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2022), 제19대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https://bit.ly/3RJgt9T>)
- 교육부(2021),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 교육부 공식 블로그(<https://if-blog.tistory.com/11191>, <https://blog.naver.com/moeblog/222107346002>)
- 국가교육회의(2020.12.22.), 2020 대국민 보고대회 온라인 자료(<https://youtu.be/scTYCCrCX68>)
- 17개 시도 교육청 누리집
-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누리집(<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
- 최수진 외(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한국교육개발원)

·이 글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직접 인용은 불가하며, 자료 활용 및 인용은 제시된 참고자료의 원문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2022 Vol.6
전북교육정책

오늘

발행일 | 2022. 10. 17.
발행인 | 유승오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총괄 | 한숙경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기획 | 김예순 교육연구사
집필자 | 김예순(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최홍규(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손형태(전북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연락처 | 063-250-3751